정부, 화학물질 정보교류 촉진

REACH는 EU에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제공 ·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이에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기업들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고, 데이터 양식도 표준화 돼 있지 않아 REACH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다.
지식경제부는 수출기업 간의 화학물질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보제공 양식을 표준화하고 해당기업들에게 무료 · 배포키로 했다.
특히, 부품 및 소재 공급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,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진출기업에도 배포할 예정이다.
또한 해당 표준양식을 국가표준(KS)으로 추진하고, 웹상에서 물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.
표준양식 및 활용매뉴얼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· 배포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0/2/8>